

가정 예배 모범

- 2022_02_27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감사함으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시편 78편 34~ 55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38절)

▶ 시인은 하나님을 (1) 공홀하시고 (2)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3)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4)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취하는 태도는 항상 사랑과 자비 공홀의 태도입니다. 결코 이유 없이 분노하시지 않으시며,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기다려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과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40-42절)

▶ 과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둬서 시험하며,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 또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과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으나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삶에서 잊은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